

2021 새해 새 설계

유기상 고창군수

“농특산물 브랜드 키워 농생명 식품산업 수도 만들겠다”



“선사시대부터 문명이 꽃 피었던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명성을 되살리고 농업혁명을 통해 고창의 농업생명 산업을 살리겠습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17일 “농생명 문화 살려다 시 치수는 한반도 첫 수도”를 기치로 내걸고 농생명 식품산업의 한반도 수도 만들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최우선 과제로 ‘농생명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창군은 시시각각 변하는 농업·식품 트렌드에 대응하며 농민수당의 지속적 지원과 농업의 발상지를 홍보하는 ‘한반도 시농대제’ 개최 등 농생명 문화화를 추진한다.

특히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높을고창’의 품목을 확대해 한반도 농생명식품 첫 수도의 높은 위상과 높은 가격, 높은 품질, 높은 신뢰도, 높은 당도 등을 포함한 고품질 먹거리 명품 브랜드로 키울 방침이다. 온라인 소프몰인 ‘높을고창몰’도 본격 운영해 재난시대 농산물 유통의 고창형 해법을 찾는다.

고창 갯벌 유네스코 등재 추진

유채꽃밭 조성 농촌관광 새 지평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총력전

또 구시포항 위판장 건립과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해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만들고 어민 소득 증대를 꾀한다. 고창 바지락 패류종자 생산시설 건립을 통해 고창 바지락을 고급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고창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된다. 등재되면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 최초 지역이 된다.

치유문화도시를 향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고창군은 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문화도시를 지원한다. 문화관광재단이 주축이 된 민간에선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반

2021년 주요 사업

- ▲농생명 식품산업, 한반도 수도 만들기
- ▲‘한반도 시농대제’ 개최
- ▲농특산물 브랜드 ‘높을고창’ 품목 확대
-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고창 전역 유채꽃밭 조성
- ▲공창산단 농식품기업 유치
- ▲모바일 지역화폐 추가 도입

이 될 인적자원의 체계적 양성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기획자나 활동가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봄에는 고창 전역이 유채꽃밭으로 치장해 농촌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무장읍성, 모양성, 선운사, 청보리밭과 14개 읍면 유채꽃밭을 연결해 많은 관광객이 오래 머물다 가는 고창관광로

로 고창 관광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또 ‘스포츠클럽 강군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최신식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를 준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전북 1위·전국 5위를 기록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공고히 한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유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기업들이 본격 가동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신선한 원료를 공급하는 농가소득이 늘어나며, 인구가 유입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창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경제 효과를 특색 있게 보고 있는 지역화폐 ‘고창사랑상품권’과 ‘높을고창카드’는 가맹점 확대와 모바일 화폐를 추가 도입한다.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를 비롯해 로컬 잡센터, 시니어클럽, 고용복지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농촌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4년간 70억원 투입

신활력플러스사업 본격 추진

순창군이 농촌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순창군은 지난 2019년에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사업에 총 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이미 농촌에 구축된 지역자산을 활용해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조성된 하드웨어와의 효율적인 연계, 액션그림 발굴 및 사람·산업의 마음간 연계 등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부사업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오는 5월까지 완료하는데 목표를 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구성됐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선은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해 주민공

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전반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해 각 읍면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도 개설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역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사업발굴과 액션그림 양성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공무원 부정부패·갑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군산시 ‘레드 휘슬’ 본격 가동

익명성 철저히 보장된 신고시스템

군산시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 휘슬’을 18일부터 도입·운영한다.

부정부패행위·부당한 업무지시·위법 부당한 예산집행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직자로서 다짐과 함께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기존 신고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한 이번 시스템은 IP 추적방지 등 최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신고시스템이다.

제보자는 청탁, 금품수수, 부당업무지시 등 공직내부 비리행위와 최근 이슈가 되는 갑질, 성희롱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 홈페이지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 모바일로 ‘레드휘슬’을 검색해 헬프라인 앱을 설치하거나, 직접 레드휘슬 웹사이트(www.redwhistle.org)를 방문 또는 스마트폰으로 군산시가 배부 예정인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된 클린스티커를 스캔 접속, 군산시를 검색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시 감사담당관 담당자에게 통보되며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 1명만 접근권한이 있어 신고사항은 보안 속에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신고자는 레드휘슬 웹사이트에 접속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익명 상태에서 감사담당관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AI·IoT기반 ‘노인 건강관리’ 선정

익산시, 국비 5억 1000만원 확보

익산시가 AI·IoT 기반으로 노인들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AI·IoT기반 노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2년까지 총 5억1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비대면 방식의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다.

사업대상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다. 익산시는 안드로이드 4.4 이상의 스마트폰 소지자면서 독거노인 또는 고혈압, 당뇨, 비만, 저체중 등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노인을 우선 순위로 600여명을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에 ‘6m 대형 눈사람’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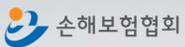
정읍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에 대형 눈사람(사진)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정읍시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자 ‘한겨울의 꼬마 눈사람’이란 이름의 눈사람을 설치한 것이다.

대형 눈사람은 아빠, 엄마, 아이로 구성돼 따뜻

하고 화목한 가족을 상징한다. 최대 높이 6m, 폭 4m로 신축년 새해 내린 내장산의 눈으로 만들어 희망의 의미를 더했다.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눈사람을 전시할 예정이며 기상 여건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